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OO시를 중심으로-

전근혜¹⁾, 조성제²⁾

The effects on the parent'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 Focused on OO city, Gyeongsangnam-do -

Geun-hye Jeon¹⁾, Sung-je Cho²⁾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OO시의 유아교육기관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순으로 부의 상관성이 높았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순으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개선과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핵심어 : 양육스트레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까다로운 기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on the parenting stress and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The subjects of study were exactly 700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parents located in OO city, Gyeongsangnam-do . from December 1st, to December 20th, 2014.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8.0 at 5% significance level was verified. First,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can be seen high when dysfunctional interaction of parenting stress, pain of parents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is correlation was higher as a result of the

Received (March 04, 2015), Review Request(March 05, 2015), Review Result(March 20, 2015)

Accepted(April 15, 2015), Published(June 30, 2015)

¹136-823 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 SungBuk-gu, Seou, Korea

email: hongikone@hanmail.net

²(Corresponding Author) 136-823 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 SungBuk-gu, Seoul, Korea

email: chosj715@daum.net

analysis in order. Second, effect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ccording to parenting stress is showed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dysfunctional interaction of parenting stress, pain of parents in orde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ought to improve parenting stress and to be the base line data for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Keywords : Parenting stress,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Dysfunctional interaction, The pain of parents, Difficult tempera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공개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1.25 명으로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는 출산율 꼴찌로 나타났다. 국가적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주요요인으로서 우리나라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국가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원인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화 현상,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의 수준은 높아져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저출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녀 출생 후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을 통하여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수는 2009년 537,361명에서 2014년 652,546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육 원아수는 2012년 1,487,361명으로 2000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특히, 유치원 시설수는 2009년 8373개원에서 2014년 8826개원으로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시설수는 2012년 43,000여개로 2000년에 비하여 2배 증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4]. 그 이유는 2012년 3월부터 우리나라 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상교육인 누리공통과정의 실시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3-4세 어린이에게도 확대 실시되는 법이 제정되었다[5]. 따라서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영, 유아 양육행동에서 부모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양육스트레스, 언어적 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갈등적 부모공동양육이 높고,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공동양육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일치도와 결합도가 낮을 때 유아기 아동의 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적대적-경쟁적 부모공동양육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졌다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6]. 결과적으로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

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부모공동양육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7].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행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지도 의사소통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 지도적 의사소통을 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자녀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정이다. 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 및 감정 지도적 의사소통행위는 자녀의 감정 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자녀의 감정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8].

물론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발달행동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커다란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모와 여기에 따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유아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제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설(H)1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H)2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경상남도 OO시의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한 응답 25명을 제외한 6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여, 5%유의수준과 90% 검정력,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였다. 분석결과 최소 표본 수는 157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6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각 영역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영역의 신뢰도 검증

[Table 1] Reliability of the respective areas

Division	Sub-factors	May question	Cronbach's α
Parenting stress	The pain of parents	12	.879
	Dysfunctional interaction	12	.915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12	.901
Parenting stress		36	.948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40	.899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11문항,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36문항,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40 문항으로 총 8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에 관한 조사도구항목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하였으며[9],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가족월 평균수입 등을 조사 하였으며, 자녀에 관한 조사도구 항목은 성별, 연령, 유아교육기관 소재지, 유아교육기관 유형, 유아교육기관의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표 2] 부모의 일반적 특성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item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dad	97	15.4
	mom	531	84.6
age	20-29 year old	35	5.6
	30-39 year old	459	73.1
	40-49 year old	132	21.0
	more than 50 year old	2	.3
	high school graduation	167	26.6
level of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244	38.9
	university graduation	202	32.2
	graduate school or higher	15	2.4

job	housewife	362	57.6
	office worker	100	15.9
	business owner	50	8.0
	professions	55	8.8
	official	26	4.1
	etc	35	5.6
monthly income	less than 200million KRW	34	5.4
	less than 200-300million KRW	169	26.9
	less than 300-400million KRW	201	32.0
	more than 400million KRW	224	35.7
total	628	100.0	

[표 3] 유아의 일반적 특성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

	item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boy	331	52.7
	girl	297	47.3
age	less than 3year old	133	21.2
	4 year old	182	29.0
	5 year old	209	33.3
	more than 6year old	104	16.6
kindergarten location	city area	328	52.2
	country area	300	47.8
kindergarten type	private	396	63.1
	public	79	12.6
	workplace	13	2.1
	home	9	1.4
	social welfare	131	20.9
total	628	100.0	

2.3.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이귀원(1996)이 수정하여 사용한 PSI/SF를 사용하여, 설문지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0]. 측정방법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이 '거의 그렇지 않다', 3점이 '그저 그렇다', 4점이 '그런편이다', 5점이 '매우 그렇다'를 부여하였다.

2.3.3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는 신두균(198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아개념, 경청, 표현의 명료성, 감정처리, 자기노출로 하위요인 간 구분 없이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11]. 측정방법은 1점이 '항상 그렇다', 2점이 '그럴 때가 많다', 3점이 '그저 그렇다', 4점이

‘그렇지 않다’, 5점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를 부여하였다. 점수분포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0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3.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는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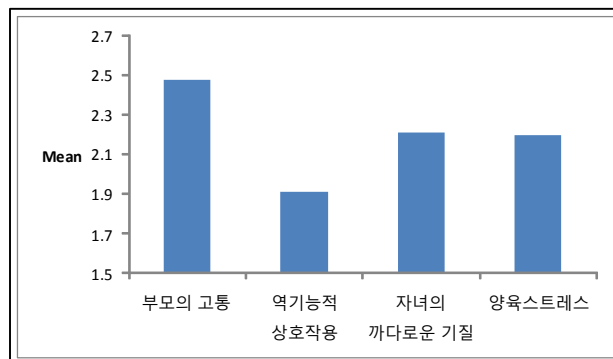
3.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평균은 2.20으로, ‘부모의 고통’(M=2.48),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M=2.21), ‘역기능적 상호작용’(M=1.91) 순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는 [표 4], [그림 1]과 같다.

[표 4] 양육스트레스

[Table 4] Parenting stress

Division	Sub-factors	Mean	SD
Parenting stress	The pain of parents	2.48	.67
	Dysfunctional interaction	1.91	.65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2.21	.66
Parenting stress		2.20	.57



[그림 1] 양육스트레스
[Fig 1] Parenting stress

3.2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는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평균은 3.69로 보통수준에서 조금 높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Table 5]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Division	Mean	SD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3.69	.41

3.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r=-.533, p<.001$), 부모의 고통($r=-.457, p<.001$),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r=-.446, p<.001$) 순으로 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

[Table 6] Parenting stress and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Divis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The pain of parents	Dysfunctional interaction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The pain of parents	1				
Parenting stress	Dysfunctional interaction	.560***	1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523***	.831***	1	
Parenting stress	.801***	.913***	.899***	1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457***	-.533***	-.446***	-.550***	1

***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부모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367$ 로 전체 변동의 36.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F=29.708$, $p<.001$),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beta=-.394$, $p<.001$), 부모의 고통($\beta=-.228$, $p<.001$) 순으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부모의 고통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Table 7] Influence of parents on parenting stres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Division	The dependent variable :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B	The standard error	β	t	p	VIF
(상수)	3.798	.141		27.001***	.000	
Control variables						
Sex parents1)	.097	.042	.086	2.325*	.020	1.327
Parents Age	.059	.028	.073	2.128*	.034	1.152
Parent education	.028	.017	.056	1.668	.096	1.092
Parents career2)	.047	.031	.056	1.513	.131	1.351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043	.016	.096	2.752**	.006	1.185
Baby Gender1)	.011	.027	.013	.412	.680	1.035
Infant age	.003	.014	.008	.251	.802	1.116
Kindergarten premises3)	.040	.028	.049	1.446	.149	1.115
K-type4)	.093	.030	.110	3.111**	.002	1.217
Parenting stress						
The pain of parents	-.138	.024	-.228	-5.712***	.000	1.546
Dysfunctional interaction	-.247	.038	-.394	-6.472***	.000	3.596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020	.036	.032	.544	.587	3.361

$$R^2 = .367, \text{adj } R^2 = .355, F = 29.708^{***}$$

** p<.01, *** p<.001

- 1) 성별: 여자=1, 남자=0
- 2) 직업: 주부=1, 그 외=0
- 3) 유치원 소재지: 군지역=1, 시지역=0
- 4) 유치원 유형: 사립(민간)=1, 그 외=0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순으로 부의 상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전체 자아존중감과 의미 있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12]와 유의미하다. 이 의미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적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순으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행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지도 의사소통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8]와 유의미하다. 이 의미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부모의 고통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순으로 부의 상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부모교육의 실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순으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향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심리적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H. K. Park,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parental role as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supervised by Professor Sook-Ryong Kim), **(2005)**.
- [2] J. Y. Ahn,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Dep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3] <http://www.kostat.go.kr/>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terials/, **(2014)**.
- [4] <http://www.moe.go.kr/> Ministry of Education/, **(2014)**.
- [5] S. Y. Cho, "Teacher's Work Satisfaction and Work Stress in Child Care Cente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4)**, Vol. 37, pp. 127-149.
- [6] S. E. Lee,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Attention Ability by Parenting Attitude", Children's Society **(2007)**, Vol.28 No.2.
- [7] M. K. Choi,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mong Co-Paren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Hyperactivity", Dep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3)**, Vol.31 No.2, pp. 25-39.
- [8] S. J. Ryu, "Effects of Communicative Practic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Their Cogni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With Elementary Students", Full-Time Lecturer, Dept. of Journalism&Mass Communication, Daegu University, Korea Press Asso **(2009)**, Vol.53, No.5.
- [9] Community Health Survey, 2010 healthy happy positive community healthy investigation, http://chs.cdc.go.kr/03_contents/contents_04.jsp, **(2010)**.
- [10] G. W. Lee, "A study on Mothers' parenting stress from mainstreaming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ept. of Spe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6)**.
- [11] D. K. Shin, "Effects of 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on Teacher'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Perception of Teachers",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1988)**.
- [12] S. R. Kim, J. M. Hong, H. k. Hong, "The Relations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Children's Media Research **(2010)**, Vol.9, No.2, pp.113 ~132.